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내달 1일 개봉...딸 납치범 쫓는 추격 블록버스터

역대급 연기에 감각적 연출 더했다

망가진 디캐프리오, 이런 얼굴 처음이야

‘할리우드 대표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역대급 연기로 돌아온다.

디캐프리오의 다음 달 1일 개봉하는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딸을 지켜내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강인한 아버지 ‘밥 퍼거슨’으로 분한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과거를 뒤로 하고 망가진 삶을 살던 ‘밥 퍼거슨’이 자신의 딸을 납치한 ‘스티븐 J. 록조’(손 펜 분)를 쫓는 추격 블록버스터다.

‘밥 퍼거슨’은 한때 자유를 외치는 혁명가였지만 16년이 지난 현재는 후유증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딸 ‘윌라 퍼거슨’(체이스 인피니티 분)뿐이다.

자신의 몸도, 딸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던 중 과거의 숙적이었던 ‘스티븐 J. 록조’가 딸을 납치한다. 딸을 찾기 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밥 퍼거슨 역을 연기한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해 옛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오래된 동료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

과연 지나온 시간만큼 더 지독해진 숙적을 상대로 그는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

칸 영화제 감독상, 베니스국제영화제 은사자상,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등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연출 장인’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은 혁명가로 활약했던 인물의 과거와 망가진 현재의 모습을 조명하며, 딸을 납치한 오랜 숙적과의 전투를 거대한 스케일과 감각적인 연출로 풀어냈다.

그동안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인셉션’ 등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 깊은 캐릭터를 탄생시킨 디캐프리오의 ‘밥 퍼거슨’의 무너진 삶뿐만 아니라 뜨거운 부성애를 화려한 액션 연기로 승화했다.

또한 ‘밥 퍼거슨’의 16년 전 숙적인 ‘스티븐 J. 록조’ 역을 맡은 손 펜은 광기에 가까운 역대급 연기로 영화에 긴장감을 선사하고, 배우 베니시오 델 토로가 ‘밥 퍼거슨’의 조력자 ‘세르지오’ 역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각인할 예정이다. 노성수 기자

세계 3대 영화제 석권한 연출 장인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과 만남에도 관심

‘쇼 왓 아이 엠’...아이브, 두 번째 월드투어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

스타쉽엔터 공식 SNS에 개최 소식

내달 31일 KSPO DOME서 포문

걸그룹 아이브(안유진·가을·레이·장원영·리즈·이서)가 다음 달 두 번째 월드 투어에 나선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아이브 공식 SNS를 통해 아이브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엠(IVE WORLD TOUR ‘SHOW WHAT I AM)’의 포스터를 게재하며 투어 개최 소식을 알렸다.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월드투어다.

아이브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KSPO DOME(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엠’의 포문을 연다.

최근 아이브의 활동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올해 초 발표한 미니 3집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의 선공개 곡 ‘레벨 하트(REBEL HEART)’로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싹쓸이했고, 타이틀곡 ‘에티튜드(ATTITUDE)’ 기록을 더해 앨범 통산 음악방송 15관왕(‘레벨 하트’ 11관왕, ‘에티튜드’ 4관왕)을 차지했다.



걸그룹 아이브가 두 번째 월드 투어에 나선다.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어 지난달 공개한 미니 4집 ‘아이브 시크릿(IVE SECRET)’의 타이틀곡 ‘엑소 엑시(XOXZ)’로 지상파 3사 음악방송에서 정상에 오르며 독보적 존재감을 공고히 했다. 활동 종료 후에도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지키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월드 투어를 통해 어떤 성장 서사를 써 내려갈지 기대된다.

서울 공연의 티켓 예매는 멜론 티켓 홈페이지(ticket.melon.com)에서 진행된다. 팬클럽 선예매는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23일 오후 11시59분까지, 일반 예매는 25일 오후 8시부터 오픈된다.

한편 아이브는 추후 공식 SNS를 통해 ‘쇼 왓 아이 엠’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노성수 기자

가수 수린 싱글 발매 4개월 만에 ‘피버’ 공개



가수 수린이 지난 16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싱글 ‘피버(FEVER)’를 발매했다.

지난 5월 데뷔 싱글 ‘보이즈 캔 비(Boys Can Be)’ 이후 4개월 만에 내놓은 새 싱글 ‘피버’는 청춘의 한가운데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거나 꿈꿔온 사랑과 상처,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을 담은 앨범이다. 타이틀곡 ‘슈어 핑(Sure Thing)’과 동명의 수록곡 ‘피버’ 두 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슈어 핑’은 첫사랑의 설렘부터 감정에 깊이 빠져드는 몰입의 순간까지 사랑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레트로 팝 장르의 곡이다. 수린의 맑은 목소리 위에 핑크한 그루브, 중독성 있는 훅이 어우러져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는다.

또 다른 수록곡 ‘피버’는 강렬한 기타 리프와 드럼, 보컬이 어우러진 얼터너티브 록 장르의 곡이다. 과거의 나를 지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순간을 그리며 청춘의 뜨거움을 선사한다. 노성수 기자/사진=오엔터테인먼트